



대전주보

<2024년 사목교서 표어> 성사 은총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공동체

발행 김종수(제2792호) 편집 천주교대전교구 홍보국

E-mail tjubo@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djcatholic.or.kr



월산리공소(한산성당) / 그림 안종찬(바오로), 2021년

연중 제11주일 | 2024년 6월 16일(나해)

제1독서 예제 17,22-24

제2독서 2코린 5,6-10

화답송

-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울곧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복음 마르 4,26-34

영성체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 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성소분과위원, 예비신학생 부모님 모임
6월 19일(수) 오후 8시
비대면 ZOOM모임

공주·논산·세종 예비신학생 모임
6월 23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천안쌍용동성당

대전 고등부 예비신학생 모임
6월 23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가톨릭문화회관



하느님 나라 좋은 하루 되세요



송우진 가시미로
도마동 주임

우리 신앙인들은 각자가 소망하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과 하느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궁금함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복음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 말씀으로 이러한 우리의 궁금함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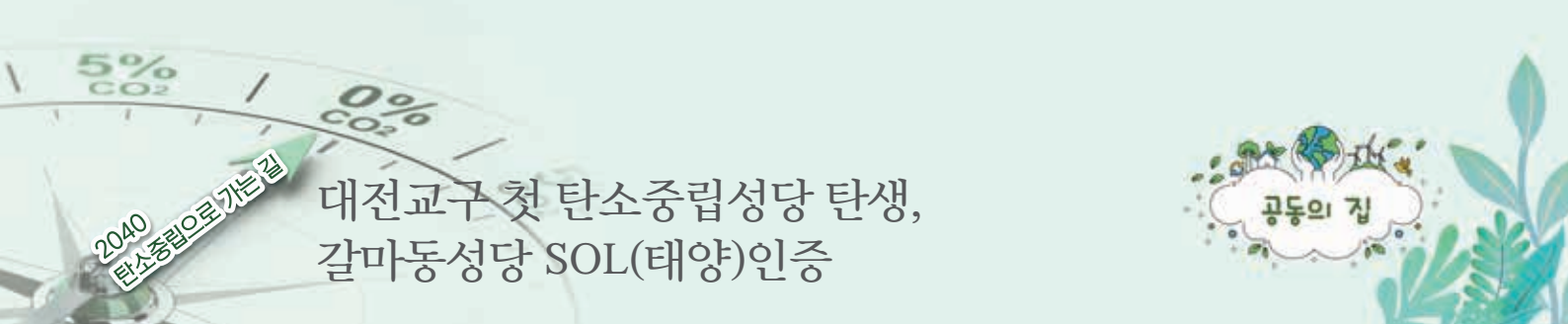
첫 번째,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작은 시작에

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마침내 엄청난 결과를 내는 하느님 나라의 능력, 다시 말해서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이라는 겸손함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느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하느님 나라는 성장하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피정이나 성지 순례 등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즉각적인 하느님 체험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모습이 크게 변하리라 기대합니다. 하느님을 믿으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시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따르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현실적인 삶의 고난들 앞에서 실패와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노력들을 비웃고 부질없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과들 역시 보잘것없어 보이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우리가 매번 마주하는 것은 일상의 변화하지 않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상의 단순함 안에 하느님의 나라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작은 나눔과 배려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 나라는 이미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에 대해 신뢰로 인내하면서 끈끌하게 하느님 나라의 성장을 위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겨자씨의 비유는 하느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냅니다. 하느님 나라의 풍성함은 하느님 사랑의 풍성함, 하느님의 넘치는 자비를 드러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갖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하느님께서 넘치는 사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에, 자선을 베풀기 때문에라는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죄의 유혹에 쉽게 끌려 넘어가는 나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느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비는 한결같고 충만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역시도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의 모습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가정 안에서, 이웃들과의 만남 안에서 우리도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교구 첫 탄소중립성당 탄생, 갈마동성당 SOL(태양)인증

갈마동성당이 대전교구의 2040탄소중립목표를 조기 달성해 첫 탄소중립성당이 되었습니다. 김종수 아우구스티노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5월 27일 주교좌 대흥동성당에서 봉헌된 찬미반오소서 주간 기념 미사에서 갈마동성당(주임 김동규 신부)에 탄소중립SOL(태양)인증패를 수여했습니다.

탄소중립SOL(태양)인증은 우선 본당 공동체가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자립하고 가스와 석유류, 수도물 등에서 나오는 탄소까지 100% 상쇄시킬 수 있는 용량까지 재생에너지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효율화설비 등 시설뿐만 아니라 생태 관련 조직과 온실가스 진단, 교육, 활동 등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실천적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갈마동성당은 총 94.4kW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자립했고 해마다 57톤의 탄소배출을 줄여 30년생 소나무 6,200여 그루를 심은 탄소중립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음화분과를 주축으로 공동체 전체가 각종 생태교육과 영화 관람 등을 통해 생태적 회개를 하고 본당 내 자원순환과 에너지절약 등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월평공원개발반대, 갑천국가

습지지정 등 지역사회 주요 환경 이슈에도 적극 대응해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갈마동성당 김동규 미카엘 신부는 “탄소중립운동은 교황님을 비롯한 세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한 형태라며, 앞으로도 본당 사목구역 안에 있는 도솔산과 갑천 등지에서 남녀노소 전 세대가 줍깅 활동을 하는 등 본당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정에서도 함께 실천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사에서 교구장 주교님께서는 관저동성당(주임 박찬인 신부)과 도마동성당(주임 송우진 신부) 그리고 천안성정동성당(주임 임상교 신부)공동체에게 탄소중립 LUNA(달)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탄소중립LUNA(달)인증은 본당 공동체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자립해 대전교구의 2030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교구 생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건 신부)는 4월에 5개 성당의 탄소중립인증 신청을 받아 현지 실사와 심사 등을 거쳐 SOL인증 1곳과 LUNA인증 3곳을 선정했습니다.

불휘햇빛발전협동조합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17. 기후변화로 피해받는 난민과 환경을 위해 기부하기

기후위기를 불러온 온실가스 배출 책임은 국가와 집단,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6위,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 3위(출처: Enerdata)입니다. 배출량 상위 20위 국가가 전체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한 타격은 오히려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나라들이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1%도 배출하지 않은 파키스탄은 2022년 홍수로 국토의 1/3이 잠기고 33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하와이와 호주 사이의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같은 피해를 받더라도 이들 나라들은 인프라가 취약하여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평등은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기후재난을 겪는 나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난민과 환경을 위한 NGO 단체들을 찾아보세요. 유엔난민기구, 유니세프, 그린피스, 굿네이버스, WWF세계자연기금, 푸른아시아 등 이미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지구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가져주시요.

찬미반오소서 7년 여정 | 생태환경위원회



Q

2. 입당송

성가 없는 미사 봉헌 시에 저희 본당은 해설자가 입당송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신자분들과 합송하는 건 안 되나요? (영성체송은 합송하고 있습니다.)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
사목국 부국장

궁금한 질문은 tjubo@djca.kr
메일 발송해 주세요!

교우들이 모인 다음 사제가 (부제와 봉사자들과 함께) 들어올 때 입당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는 미사 거행을 시작하고, 함께 모인 이들의 일치를 굳게 하며, 전례 시기와 축제의 신비로 신자들의 마음을 이끌고, 그들을 사제와 봉사자들의 행렬에 참여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47항). 가톨릭대사전에서 “입당송”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당송은 시편이나 예언서에서 발췌한 짧은 구절로 교송과 함께 로마 전례의 미사에 있어서 집전 사제가 제단으로 나오는 동안 불려진다.”

우선 입당 성가는 성가대와 교우들이 교대로 부르거나 비슷한 방법으로 선창자와 교우들이 교대로 부르거나, 노래 전체를 모두 함께 부르거나 또는 성가대만 부를 수 있다고 전합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48항). 이러한 의미에서 입당 때 성가를 부르는 것이 권장되어집니다. 그러나 입당할 때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당할 때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로마 미사 경본’에 실린 입당송을 신자들이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독서자가 낭송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제가 직접 낭송한다.”

이 지침을 해석해 보자면, 신자 전체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 곧 독서자, 해설자가 낭송하거나 또는 사제가 낭송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해설자가 혼자 낭송한다고 해서 지침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당 성가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바라본다면, 신자 전체가 사제를 맞이하며 입당송을 부르는 것이 가장 권장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입당송은 5세기 로마의 대성전에서 교황이나 주교가 미사를 집전할 때 성당까지 긴 행렬을 했는데 이 행렬 동안 모든 신자가 다함께 시편 하나를 외우는 데서 유래합니다. 7~8세기에는 성당 구조의 변경으로 인해 긴 행렬이 없어지고 짧은 행렬이 이루어지면서 시편 전체가 아닌 그날 축제의 의미와 부합되는 한 구절로 간략하게 바뀌게 되었는데, 이러한 점이 오늘날의 입당송의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입당송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제의 입당을 환영하는 하느님 백성들의 환호소리입니다. 하느님 백성들의 환호라고 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더 합당하겠습니까?

대전성모병원 사시·약시 클리닉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DAEJEON ST. MARY'S HOSPITAL



사시는 양쪽 눈의 정렬 상태가 똑바르지 않은 상태로 원인은 원시, 눈을 움직이는 근육의 이상, 외상, 뇌질환, 한쪽 눈의 시력장애 등 다양합니다.

소아사시 환자의 경우 정면을 주시하는 눈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시력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만 돌아간 눈은 사용하지 않게 돼 시력이 발달되지 않고 약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시의 치료는 시기가 어릴수록 치료의 성공률이 높고 초등학교 이후에는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사시·약시 클리닉은 시력의 보존, 눈의 위치 교정, 그리고 양안시의 회복을 치료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치료는 사시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안경 착용, 약시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안경 착용 및 약시 치료의 경과나 사시의 종류에 따라 시기를 달리해 실시하는데 흰자위를 덮고 있는 결막에 조그만 절개를 가한 후 한 눈 또는 양 눈의 외안근을 수술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인공물질을 외안근 사이에 이식시키는 새로운 수술법이 개발됐으며 이는 특수한 상사시 교정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교구알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 때 : 6.25(화) 19:00
- 곳 : 주교좌 대흥동성당
- 주례 : 총대리 한정현 스테파노 주교
- 문의 :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042)636-1331

대전민화위 '평화기원 생활성가 콘서트'

- 때 : 6.22(토) 17:00~19:00
- 곳 : 주교좌 대흥동성당 마리아홀
(가톨릭문화회관)
- 내용 : 평화기원 생활성가 & 토크 콘서트(무료)
- 출연 : 최옥희 아나운서,
J_Fam(가톨릭 찬양보컬팀)
- 문의 : (042)636-1331

생태영성 피정

- 때 : 6.28(금) 15:00~30(주일) 16:00
- 곳 : 살레시오회 나자렛 집(대전 동구)
- 참가비 : 1인 12만원
- 신청마감 : 6.24(월), 15명 선착순
- 신청문의 : 010-3452-9702 생태환경위원회



교구 내 기관 및 시설

무료 상담소 "에우"

- 신앙문제 및 성사, 우울, 불안, 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문제, 부부갈등 등
- 상담자 : 박종우 신부 및 전문상담사
- 전화예약 후 상담 / 문의 : (042)285-1234
- 매주 목요일 야간상담 가능(오후 6시부터)
- 읍내동 현대아파트 정문 옆 상가 2층

효소단식 복음서통독 4박5일 피정

- 때 : 8.19(월)~23(금)
- 내용 : 비움과 충만을 향한 영적여정
- 곳 : 정하상 교육회관
- 교육비 : 43만원
- 문의 : 010-8848-5690

대전평화방송 아도르페(시니어)합창단원 모집

- 대상 : 만55세 이상 남녀 가톨릭신자
- 연습 : 매주 월요일 1부 10:30, 2부 19:30,
선화동성당
- 문의 : 010-7933-8248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 '치매전문병동' 운영
-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 성사 생활 가능
- 간호·간병·조리 인력 상시 모집
- 문의 : (041)950-1008

노인학대 상담 및 제보

- 곳 : 서구 문정로170번길 103
(보라삼거리 부근)
- 상담방법 : 내방, 방문 상담, www.dj1389.or.kr
- 문의 : 1577-1389, (042)472-1389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

정신재활시설 햇살한줄 이용회원 모집

- 대상 :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성인
- 이용시간 : 09:00~16:30 (월~금)
- 서비스 : 상담, 교육지원,
취업 및 자립지원사업 등
- 주소 :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별관 2층
- 문의 : (042)622-7018



교회 운동 및 인준단체

대전역, 천안역 노숙형제돌봄 후원기부 요청

- 후원품목 : 김치컵라면박스, 즉석밥박스,
여행용김치볶음박스, 양말세트, 세면타올
- 접수처 : 본당 사무실 또는 대전교구빈첸시오회
- 기간 : 2024.11.30(토)까지
- 문의 : 010-7543-5114, (042)626-2031
대전교구 빈첸시오회 정기호 요셉

마리아 사제운동(MSM)체나콜로 월례미사

- 때 : 6.17(월) 14:00 체나콜로, 15:30 미사
- 곳 : 주교좌 대흥동성당(대강당)
- 문의 : 010-5184-8696

오기선요셉 장학회 정기미사

- 때 : 6.20(목) 15:00
- 곳 : 천안오룡동성당
- 미사집전 : 정우석 신부, 김정수 신부
- 문의 : 010-9894-8004, 010-8802-3860

대전가톨릭성서모임 제101차 사도행전 연수

- 대상 : 사도행전 그룹공부 이수한 사람
- 때 : 6.29(토)~30(주일) 오전 09:30~16:00
- 곳 : 가톨릭문화회관
- 수강료 : 5만원
- 신청 문의 : 010-4228-0470

대전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6월 월례회

- 때 : 6.24(월) 14:00~16:00
- 곳 : 대전교구청 명례방
- 내용 : 전례특강미사
- 작품발표 : 성모 승천 대축일, 꽃다발 만들기
- 문의 : 010-4171-9145

대전주보 「교구 신자들의 신앙 나눔터」는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지면입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수필 형식으로, 원고지 6장 또는 A4(10pt) 용지 25줄 이내로
원고 작성 후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원고가 채택되신 분은 각각 6월 30일, 9월 29일, 12월 29일 주보

「교구 신자들의 신앙 나눔터」 지면에 실리게 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5로 12 대전교구청 홍보국

이메일 : tjubo@dj catholic.or.kr / 문의 : (044)270-3041 홍보국

가정사목부 프로그램 안내

- 신청 : 가정사목부 홈페이지 <http://familia.djcatholic.or.kr>

- 문의 : (042)256-5487~8

프로그램	때 · 곳	대상
태아와 산모축복(영유아)미사	6.19(수) 10:00, 모산성당 6.21(금) 10:00, 천안옹곡동성당	임산부, 영유아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6.20(목) 10:00, 천안신부동성당	모든 신자
혼인교리	7.6(토) 비대면	혼인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제97차 선택주말	7.5(금)~7(주일), 살레시오교육사목센터	미혼 남녀 젊은이(20~올해 39세, 종교불문), 성직자, 수도자, ME수강부부

보나투어 성지순례

8/16 말레이시아 페낭&말라카 순례 6일 225만원
9/23, 10/21 마카오 도보순례 4일 139만원
12/19 남인도 성지순례 13일 595만원
T. (02)732-4578 보나투어를 검색해 보세요

연세내과

(365일 24시간 진료)

내과전문의 박준용(베드로)

둔산 타임월드 정문 앞 T. (042)485-8000

척추·관절 허리사랑병원

대표원장 : 김관태(바오로)

척추·관절 전문의 10인 진료

T. (042)528-7588 롯데백화점 옆

대전성모안과

원장 : 박인철(미카엘) Since 1998

(전)우리성모안과 원장 (전)눈빛안과 원장

롯데백화점 맞은편 T. (042)533-0078

모두의 안과

원장 : 이영훈, 진선영, 백승국(라파엘)

영동포 김안과, 건양대병원교수출신

망막, 녹내장, 백내장 중점진료

을지대병원 근처 T. (042)721-2211

이안과병원

의료법인 청운의료재단(이안과병원)

병원장 : 이여덕(바오로)

안과전문의 : 6인진료

T. (042)220-5500 대흥동 성당 맞은편



교구 외 기관 및 시설

2024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성음악
직무자 세미나

- 대상 : 지휘자, 반주자 및 관심있는 모든 교우
- 때 : 2024.7.13~8.17 중 토요일
(7.13, 7.20, 8.10, 8.17)
- 등록 : 6.10(월)~28(금)까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casm.co.kr)
- 곳 : 최양업홀(중립동)
- 문의 : (02)393-2213~5

사이버성경학교 할인&수료이벤트&
다양한 무료컨텐츠

- 내용 : 복수과목 신청시 할인&
수료시 25,000포인트 지급(단과제외)&무료통독
- 문의 : (031)360-7635, 010-7470-7966

국악성가 한발합창단 단원모집

- 지휘 : 강수근 신부 직강
- 연습 : 매주 화 20:00
- 곳 : 둔산동성당
- 문의 : 국악성가연구소 총괄실장 010-2279-0255

대전 밀레마니 문화영성 센터

-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캘리그라피, 이콘
- 전례초조각(초·중·고급) 성가, 영성심리상담
- 프랑스성모발현지(공식인준6곳)순례 8.23~9.3
- 문의 : (042)226-8185 서대전네거리역8번출구

노년기 상담봉사자 교육

- 노년기 영성과 지혜로운 삶의 모습,
긍정심리학을 통한 상담기술 교육 프로그램
- 때 : 6.27~7.18 10:30~12:30 (4주 과정)
- 곳 : 가톨릭문화회관 401호(대흥동성당)
- 신청 : 마음정원영성센터
(042)862-9780, 010-5392-6353

51기 내면아이치유워크숍

-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돌보는 마음여행
- 대상 : 관계소통 회복 경험, 내면의 성장을
원하시는 분
- 때 : 6.21(금)~23(주일) 2박3일
(시작하는 날 10:30~마치는 날 18:00)
- 신청 : 마음정원영성센터
(042)862-9780, 010-5392-6353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 120만원 / 3박4일
- 문의 : 010-3645-9028



수도회 및 피정

바로로말과 함께하는 젊은이피정

- 대상 : 2030 미혼 여성
- 서울(본원) : 6.22(토)~23(주일), 6.26(수)~27(목)
- 여주 : 7.13(토)~14(주일)
- 문의 : 010-7251-1908(김테레사 수녀)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 생태순례 : 6.22~24, 7.19~21, 9.1~3
- 우도포함생태순례 : 7.25~28, 8.1~4
8.8~10, 8.14~17, 8.21~23
- 추자도포함성지순례 : 9.7~10, 10.13~16
- 문의·접수 : (02)773-1463, (064)756-6009

속리산과 함께하는 2박3일 침묵피정

- 때 : 6.21~23, 7.12~14, 8.23~25
- 곳 : 보은 예수수도회 영성의집
- 문의 : 010-9608-0208 (1:1개인지도식)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피정

- 때 : 8.1(목)~4(주일)
- 곳 :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왜관 수도원 내)
- 38만원(1인실) / 지도 : 허성준 신부(외)
- 신청 : 010-8599-3127 한릿타 봉사자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젊은이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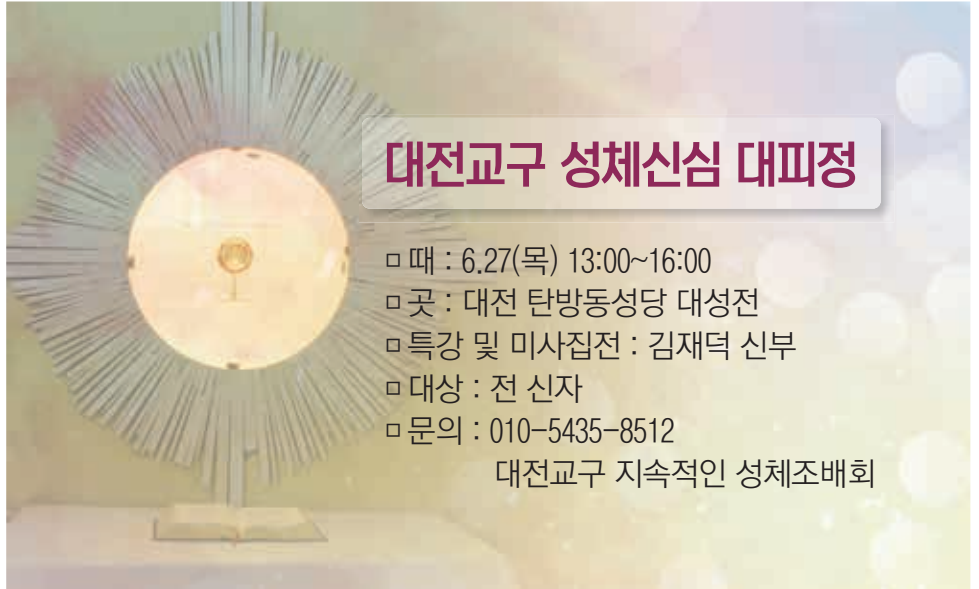
- 때 : 6.30(주일) 14:00
- 곳 : 대전가톨릭회관 4층
- 대상 : 만39세이하 가톨릭 미혼여성 누구나
- 문의 :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모임

- 때 : 6.22(토) 14:00 / 그 외는 전화
- 곳 : 대전 대철회관
- 대상 : 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미혼 여성
- 문의 : 010-9353-1773 (미리연락)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 성이시돌 목장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 제주여행과 자연순례(연중피정 접수중)
- 대상 :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 우도포함자연순례 : 7.12~14, 7.20~22, 7.25~28
8.1~4, 8.6~8, 8.10~13, 8.24~26
- 추자도포함 : 7.1~4, 9.11~14, 10.5~8, 10.27~30
- 문의 :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대전교구 성체신심 대피정

- 때 : 6.27(목) 13:00~16:00
- 곳 : 대전 탄방동성당 대성전
- 특강 및 미사집전 : 김재덕 신부
- 대상 : 전 신자
- 문의 : 010-5435-8512

대전교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한끼100원나눔운동
2024년 사랑의 온도현황

37.6°C

총 모금 376,354,232원

[5.24~31 모금액] 38,696,533원
본당 21,498,233원 / 개인·기관·행사 17,198,300원

에스티 피부과 (전 을지외대 교수 / 현 충남의대 외래교수) 김윤동(사도요한) 롯데백화점 옆 T. (042)535-5800	늘봄약국 (전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약사) 약사 김주현(로사)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정문 앞 T. (042)222-0662	정한방병원 (재활의학과 한의과 협진) 병원장 정주영(요한) / 김서연(프란치스카) 중풍재활 / 수술 후 재활 / 교통사고 / 도수치료 365일 진료, 평일 매일 야간진료, 일요일 진료 타임월드 도보 1분 T. (042)486-6000
대형환경(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철거공사·순환 골재 및 토사생산) 계룡I.C 인근 T. (041)732-0620 대표 강희권 울리오	플랜트 치과 손외수 대표원장, 양찬영(스테파노), 김명균(바로로) 원장 외 20명 의사 협진 T. (042)825-2275 유성 홀플러스 옆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8/13 스페인 남부,루르드,파티마 485만원 8/26 튀르키예, 그리스 485만원 9/2 발틱3, 폴란드 490만원 신청 및 문의 T. (02)2281-9070

찬미가(Hymnus), 두 번째 이야기 - 산문체 찬미가 중 대영광송

| 교회음악 이야기 II

4월에 우리는 찬미가의 의미와 대략적인 분류와 내용 그리고 대표적인 찬미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회는 현재 총 세 개의 산문체 찬미가를 부르고 있는데 ‘대영광송’(Gloria in excelsis), ‘사은찬미가’(Te Deum) 그리고 ‘당신을 찬양함’(Te decet Laus)입니다. 찬미가 그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산문체의 찬미가 중 대영광송에 관해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를 제외하고 일 년 내내 주일이나 대축일에 부르는 ‘대영광송’(Gloria in excelsis)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대영광송은 안타깝게도 기도문의 저자나 만들어진 시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방 교회에서 성무일도의 아침 기도 중에 부르던 찬미가로, 서방 교회로 전해진 후에는 4세기경 교황이 집전하는 예수 성탄 대축일에 불렀습니다. 이는 대영광송이 루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천사들이 노래하는 부분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5세기 말~6세기 초 즈음에 주교가 집전하는 모든 주일과 순교자축일 미사에서 대영광송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사제들은 부활 대축일 미사 때에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교회에서 매 주일 대영광송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11세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대영광송의 내용은 천사의 노래, 하느님 찬양, 그리스도 찬양 그리고 영광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작 부분의 천사의 노래가 끝난 후 “기리나이다”, “찬미하 나이다”, “흠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라는 말로 전능하신 하느님께 대한 신앙고백과 찬송을 바칩니다. 이는 2세기부터 내려온 성부께 대한 환호입니다. 이어서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간구입니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들을 통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리고 이어서 자비를 간구하는데, 이는 4세기경부터 내려온 성자께 대한 찬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 대한 찬양은 마지막 영광송 부분에서만 간단히 나옵니다.

예로부터 대영광송을 가사로 작곡된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주로 미사곡 안에서 한 부분으로 작곡되었으나 몇몇 작품은 대영광송만으로 작곡되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바로크 시대 작곡가인 비발디(Antonio Lucio Vivaldi, 1678-1741)의 《글로리아》(Gloria)와 영국 현대 작곡가인 루터(John Rutter, 1945-)의 《글로리아》(Gloria)를 소개합니다.



비발디
(Antonio Lucio Vivaldi)



루터(John Rutter)

신혜순 데레사 연주학박사(지휘)

본당의 첫영성체



배방본당



궁동본당



전민동본당



봉산동본당



장항본당



반석동본당



신탄진본당



대천본당

2024년 상반기 성사전담사제와의 만남



‘2024년 상반기 성사전담사제와의 만남’이 5월 30일 (목) 대전교구청에서 있었다.

이번 만남은 올해 사제 ‘서품 60주년’을 맞는 윤영균 신부를 비롯해 성사전담사제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 주교의 환영 인사와 교구 사목 전반에 대한 나눔이 있었다.

이어 교구장 김종수 주교와 총대리 한정현 주교의 축하로 상반기 축일을 맞는 성사전담사제 18명의 축하식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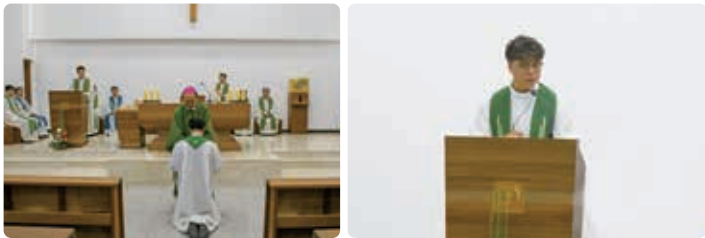
공세리본당 성체거동



공세리본당 성체거동이 6월 1일(토) 공세리성당(주임 홍광철 신부) 일대에서 교구장 김종수 주교 주례로 거행됐다.

성체거동미사 봉헌으로 시작한 이번 성체거동은 사제 단과 본당 교우를 비롯해 전국에서 참여한 교우 1,700여 명이 함께했다.

해외 선교 파견 예정



2024년 사제 인사 발령을 통해 해외 선교(에티오피아)로 파견된 허웅 신부의 파견 예정이 5월 28일(화) 교구청 경당에서 교구장 주교 주례로 있었다.

안면도본당, 도룡동본당 견진성사



교구장 김종수 주교는 6월 2일(주일) 안면도성당(주임 김명환 신부)에서 본당 교우 16명을 대상으로 견진성사를 집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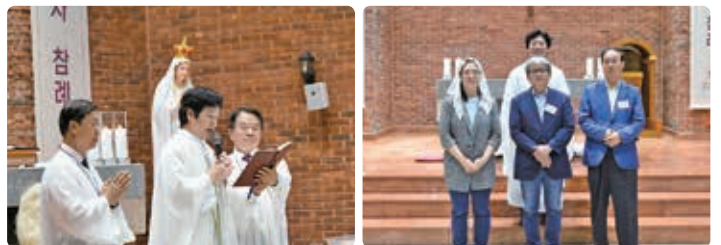
총대리 한정현 주교는 6월 2일(주일) 도룡동성당(주임 김인호 신부)에서 본당 교우 62명을 대상으로 견진성사를 집전했다.

수녀연합회 연수



총대리 한정현 주교는 6월 4일(화) 정하상교육회관에서 개최된 수녀연합회 연수 미사를 봉헌했다.

자양동본당 세례식



자양동본당(주임 최용목 신부)은 6월 2일(주일) 7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쳐 세 명이 빛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식을 했다.

영세자들이 주님의 은총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본당 성모의 밤



궁동본당

관저동본당

세종성요한바오로2세본당

천안구룡동본당

노은동본당

세종성프란치스코본당

원신흥동본당